

| 제목                    | 출처   | 보도일자            | 게재면 |
|-----------------------|------|-----------------|-----|
| 양자정보과학<br>'노벨상 후보' 온다 | 전자신문 | 2008년 8월 21일(목) | 17면 |

# 양자정보과학 '노벨상 후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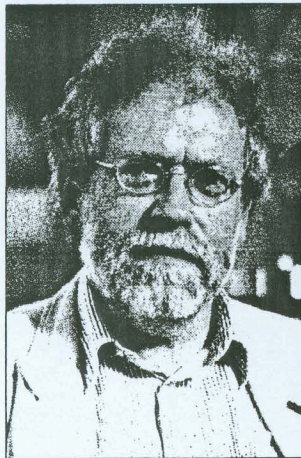
## 고등과학원 주최 행사에 자일링거 교수 등 방한

양자정보과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이 한국에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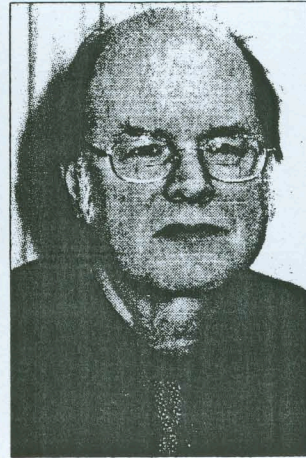
고등과학원(원장 명효철)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고등과학원에서 '제8회 아시아양자정보과학학회(AQIS 08)'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학회는 양자정보과학과 기술에 관한 이론과 실험을 총망라하는 행사로, 중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유럽에서도 많은 과학자들이 초청되어 최신 연구성과를 교류한다.

이번에 초청강연을 하는 학자들은 양자정보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점쳐지는 석학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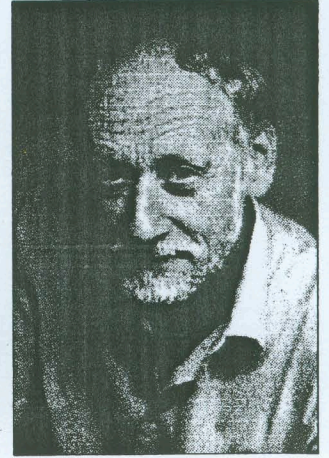
'광자의 양자얽힘과 양자통신'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는 오스트리아 빈 대



자일링거 교수



베넷 박사



지생 교수

학 안톤 자일링거 교수는 세계 최초로 양자 원격전송, 양자얽힘을 이용한 양자암호, 양자얽힘의 원거리전송 등의 실험에 성공해 양자정보실험 분야를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자일링거 교수는 올해 영국물리학회에서 수여한 아이작 뉴턴 메달

의 최초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최초로 양자암호를 상용화한 스위스 제네바대학 니콜라스 지생 교수와 양자정보과학이론의 선구자인 미국 IBM연구소 찰스 베넷 박사도 특별강연을 한다.

권건호기자 wingh1@

| 제목               | 출처   | 보도일자            | 게재면  |
|------------------|------|-----------------|------|
| 양자정보과학 석학들 한국 온다 | 한국경제 | 2008년 8월 21일(목) | A37면 |

## 양자정보과학 석학들 한국 온다

### 25일부터 고등과학원서 학회 열려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세계적인 양자정보과학 석학들이 한국을 찾는다. **고등과학원(KIAS)**은 오는 25일부터 7일간 서울 청량리 고등과학원에서 '제8회 아시아양자정보과학학회(AQIS08)'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학회는 양자정보과학과 기술에 관한 이론과 실험을 총망라하는 행사로 양자정보과학분야 노벨상 0순위로 거론되는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자일링거(Anton Zeilinger) 교수와 스위스 제네바대학의 니콜라스 지생(Nicolas Gisin), 미국 IBM 연구소의 찰스 베넷(Charles Bennett) 박사 등이 참석해 '광자의 양자얽힘과 양자통신' '양자중계기' 등에 대해 강연한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

| 제목               | 출처   | 보도일자            |
|------------------|------|-----------------|
| 양자정보과학 석학들 한국 온다 | 연합뉴스 | 2008년 8월 20일(수) |

## 양자정보과학 석학들 한국 온다

[연합뉴스 2008-08-20 15:52]



(서울=연합뉴스)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고등과학원**에서 개최하는 제8회 아시아양자정보과학학회 참석차 방한하는 세계적인 양자정보과학 석학 짜일링거(왼쪽부터) 교수, 베넷 박사, 지생 교수.

| 제목                        | 출처      | 보도일자            |
|---------------------------|---------|-----------------|
| 양자물리분야 노벨상 후보들<br>한국에 모인다 | 파이낸셜 뉴스 | 2008년 8월 20일(수) |

## 양자물리분야 노벨상 후보들 한국에 모인다

2008-08-20 13:58:01

고등과학원은 25일부터 7일간 서울 청량리동 고등과학원에서 '제8회 아시아양자정보 과학학회(AQIS08)'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학회는 양자정보과학과 기술에 관한 이론과 실험을 총망라하는 학회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많은 과학자들이 참석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특히 이번 학회엔 양자정보과학분야 노벨상 0순위로 거론되는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의 짜일링거 교수와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니콜라스 지생, 미국 IBM 연구소의 찰세 베넷 박사 등이 참석해 '광자의 양자얽힘과 양자통신', '양자중계기' 등에 대해 강연한다.

고등과학원은 "이같은 세계적인 대회를 우리나라가 개최한다는 것은 양자정보과학 분야에서 한국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증거"라며 "이번 학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앞으로 이 분야의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newton.kias.re.kr/aqis08/>)에서 볼 수 있다.

/economist@fnnews.com이재원기자

| 제목                      | 출처     | 보도일자            |
|-------------------------|--------|-----------------|
| 양자정보과학<br>세계적 석학들 한국 온다 | 디지털타임스 | 2008년 8월 20일(수) |

## 양자정보과학 세계적 석학들 한국 온다

박상현 기자 psh21@dt.co.kr | 입력: 2008-08-20 19:43

고등과학원은 25~31일까지 양자컴퓨터와 양자암호 등 양자정보과학 분야 세계 석학들이 참가하는 제8회 아시아양자정보과학학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학회에는 영국물리학회(IOP)가 수여하는 '아이작 뉴턴 메달' 최초 수상자인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의 안톤 짜일링거(Anton Zeilinger) 교수, 양자정보과학이론의 선구자로서 최초로 양자원격전송 이론을 제시한 미국 IBM연구소 찰스 베넷(Charles Bennett) 박사, 양자암호를 상용화한 스위스 제네바대학 니콜라스 지생(Nicolas Gisin) 교수 등 양자정보과학 분야에서 유력한 노벨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는 석학들이 방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http://newton.kias.re.kr/aqis08/>)에서 확인할 수 있다.

